

2025 년도 「센다이시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 조사 결과 보고서 [개요판]

I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본 조사는 동북대학교의 국제탁월연구대학 선정 등을 계기로 외국인 주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적, 체류자격, 직업 등의 기본 정보와 센다이시의 규칙 등에 대한 인지도,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지역사회와의 교류 현황 등을 파악하여 각종 시책의 검토 및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2. 조사 대상

2025 년 5 월 1 일 현재 센다이시에 거주하는 16 세 이상의 외국 국적 주민 16,640 명

※ 2025 년 5 월 2 일 이후 전출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

3. 조사 방법

조사 대상자의 자택으로 조사 협조 요청서를 우편 발송하고, 웹사이트의 전용 양식을 통해 응답을 받았다.

4. 조사 기간

2025 년 7 월 4 일부터 2025 년 8 월 4 일까지

5. 조사표 언어

쉬운 일본어, 영어, 중국어(간체자), 중국어(번체자), 한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인도네시아어

6. 응답 현황

발송 건수	반송 건수	①조사 실시 건수 (발송 건수 - 반송 건수)	②유효 응답 건 수	유효 응답률 (② / ①)
16,640 건	395 건	16,245 건	3,500 건	21.5%

7. 유의 사항

- 각 문항의 모집단을 나타내는 ‘n’은 해당 문항의 유효 응답자 수를 의미한다.
- 도표의 구성비(%)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하였다. 따라서 단일 응답 문항의 경우 반올림으로 인해 구성비의 합계가 반드시 100%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복수 응답 문항의 경우 해당 문항의 전체 응답자 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선택지별 구성비의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있다.
-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각 문항은 무응답을 포함한 유효 응답자 수를 기준으로 집계하였다.
- 본문 및 도표에 표시된 선택지는 표현을 줄이거나 간략하게 표기한 경우가 있다.

II 조사 분석 결과의 주요 내용 및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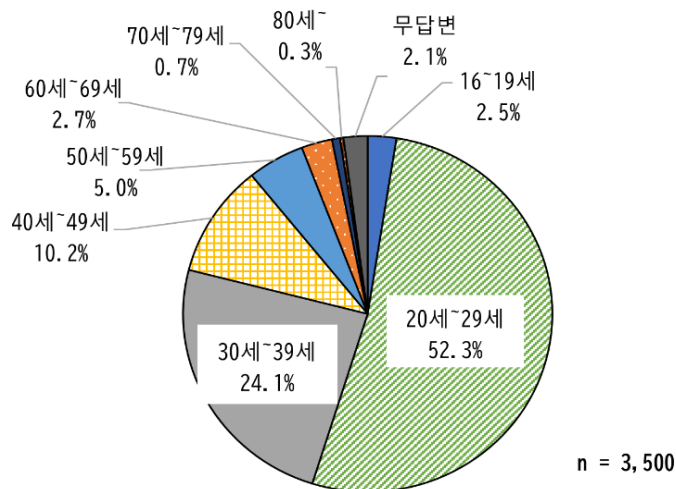
1. 기본 속성

주요 내용

연령은 ‘20~29 세’가 52.3%로 가장 많았다.
 체류자격은 ‘유학’이 46.3%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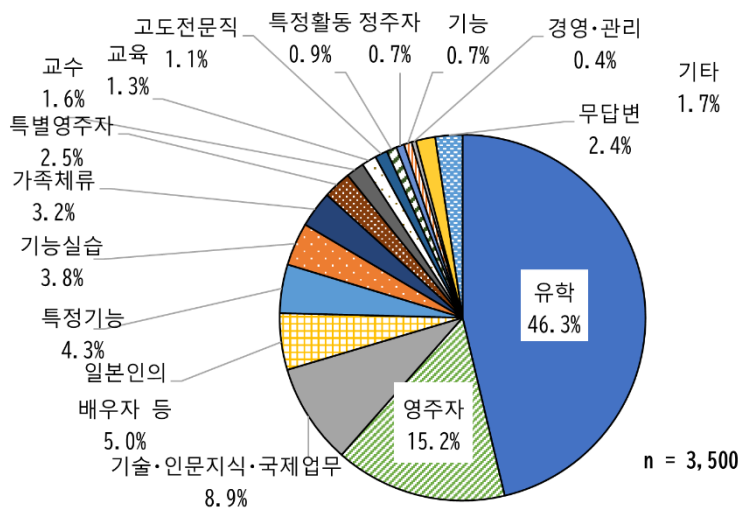
- 국적·지역은 ‘네팔’이 22.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이 18.3%였다.
- 성별은 ‘남성’이 50.7%, ‘여성’이 45.6%였다.
- 연령은 ‘20~29 세’가 52.3%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39 세’가 24.1%였다.

‘문 3 연령’의 단순 집계 결과



- 동거인의 유무는 ‘있다’가 49.3%, ‘없다’가 43.8%였다.
- 체류자격은 ‘유학’이 46.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주자’가 15.2%였다.

‘문 5 체류자격’의 단순 집계



- 현재 하고 있는 일은 ‘회사원’이 20.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본어학교 학생’이 17.0%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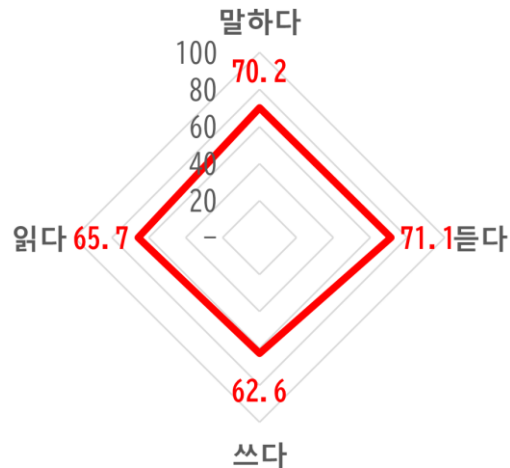
2. 언어

주요 내용

일본어 능력은 ‘말하기’와 ‘듣기’가 ‘쓰기’와 ‘읽기’보다 높았다.
일본어 학습 방법은 ‘책이나 온라인 등을 이용하여 혼자 공부한다’가 23.0%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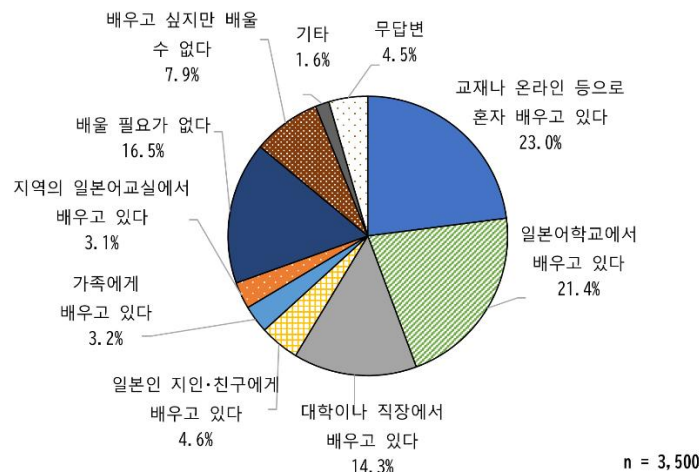
- 일본어 능력을 가중평균하여 단순 집계한 결과, ‘말하기’는 70.2%, ‘듣기’는 71.1%, ‘쓰기’는 62.6%, ‘읽기’는 65.7%였다.

‘문 7 일본어 능력’의 가중평균에 따른 단순 집계 결과



- 일본어 학습 방법은 ‘책이나 온라인 등을 이용하여 혼자 공부한다’가 23.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본어학교에서 공부한다’가 21.4%였다.

‘문 8 일본어 학습 현황’의 단순 집계 결과



- 일본어를 배우지 않는 이유의 1 순위 응답은 ‘일본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 50.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이나 육아 등으로 바빠 배울 시간이 없기 때문’이 17.5%였다.
- 희망하는 일본어 학습 방법의 1 순위 응답은 ‘일본인과 대화하면서 배운다’가 35.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배운다’와 ‘인터넷이나 앱으로 원하는 시간에 배운다’가 각각 13.4%였다.
- 영어 능력을 가중평균하여 단순 집계한 결과, ‘말하기’는 65.4%, ‘듣기’는 67.5%, ‘쓰기’는 68.8%, ‘읽기’는 72.7%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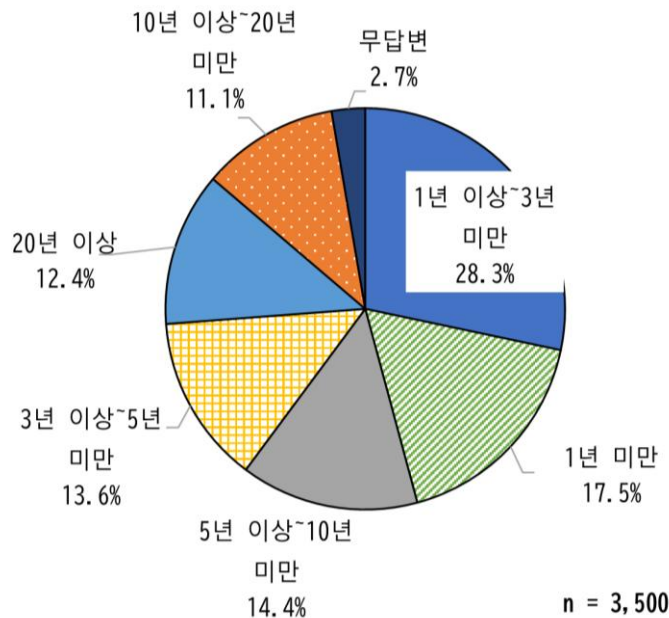
3. 거주

주요 내용

일본 거주 기간은 '1~2년'이 28.3%로 가장 많았다.
거주 주택은 '민간 임대주택'이 53.5%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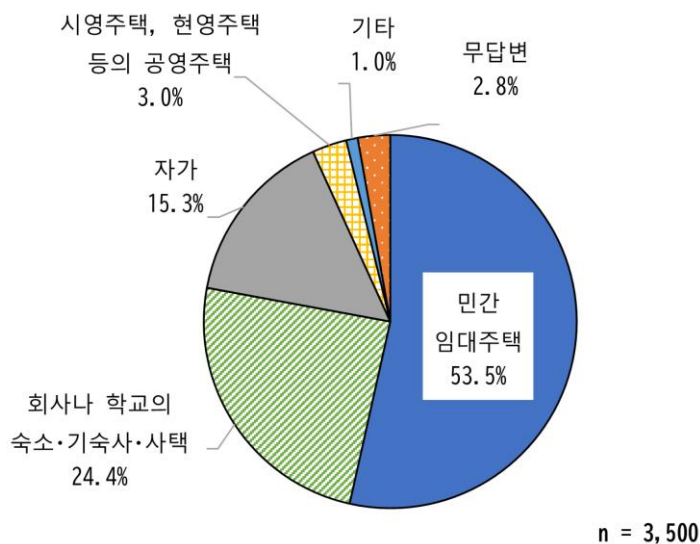
- 일본 거주 기간은 '1~2년'이 28.3%로 가장 많았고, 이어 '1년 미만'이 17.5%였다.

‘문 12 일본 거주 기간’의 단순 집계 결과



- 거주 주택은 '민간 임대주택'이 53.5%로 가장 많았고, 이어 '회사나 학교의 숙소·기숙사·사택'이 24.4%였다.

‘문 13 거주 주택’의 단순 집계 결과



- 집을 구한 방법은 '회사·학교의 소개'가 25.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동산업소 방문'이 23.0%였다.
- 집을 구할 때 겪는 어려움은 '월세·보증금·사례금이 비싸다(비용이 많이 든다)'가 41.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없다'가 35.3%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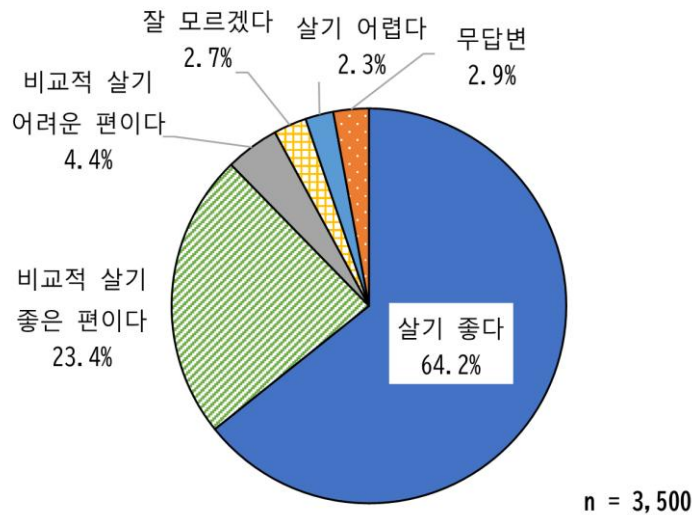
4. 생활

주요 내용

센다이시의 거주 편의성에 대해 ‘살기 좋다’와 ‘비교적 살기 좋다’의 합계는 87.6%였다.

- 센다이시의 거주 편의성에 대해 ‘살기 좋다’가 64.2%로 가장 많았고, 이어 ‘비교적 살기 좋다’가 23.4%였다.

‘문 16 센다이시의 거주 편의성’의 단순 집계



- 센다이시의 장점은 ‘자연(나무·강·산 등)이 풍부하다’가 58.0%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통학·통근·쇼핑 등 생활이 편리하다’가 50.4%였다.
- 센다이시·일본에 계속 거주할 의향을 묻는 문항에서는 ‘센다이시에서 계속 살고 싶다’가 49.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센다이시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계속 살고 싶다’가 33.2%였다.
- 주민세 등 세금 납부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87.1%, 의료보험 가입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93.3%였다.
- 일상생활에서 겪은 어려움이나 문제는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가 생긴 적이 없다’가 35.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세금·연금 제도나 납부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가 생겼다’가 24.7%였다.
-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하는 상대의 1순위 응답은 ‘같은 나라 출신 친구·지인’이 36.4%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족’이 20.9%였다.

5. 정보

주요 내용

정보를 얻기 위해 희망하는 지원은 ‘쉬운 일본어로 된 정보 제공’이 37.3%로 가장 많았다.

- 정보를 얻는 경로의 1 순위 응답은 ‘함께 사는 가족’이 24.1%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학교 선생님이나 직장 동료’가 17.6%였다.
- 정보를 얻기 위해 희망하는 지원의 1 순위 응답은 ‘쉬운 일본어로 된 정보 제공’이 37.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어로 된 정보 제공’이 20.6%였다.

‘문 24 정보 취득을 위해 희망하는원’의 단순 집계 결과

	順位 (n = 3,500)		
	1位	2位	3位
쉬운 일본어로 정보 제공	37.3%	16.0%	8.2%
영어로 정보 제공	20.6%	21.3%	8.6%
모국어(영어 제외)로 정보 제공	17.1%	16.0%	15.2%
전화번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로 문의할 수 있는 환경	4.3%	8.1%	9.9%
메일이나 SNS 문의할 수 있는 환경	1.9%	6.4%	11.7%
기타	0.4%	0.4%	0.9%
바라는 지원은 없다	7.4%	0.9%	3.4%
무답변	10.9%	30.8%	42.1%

6. 복지·의료

주요 내용

질병이나 부상 시 겪는 어려움은 ‘병원 종류가 많아 찾는 방법을 모르겠다’가 30.2%로 가장 많았다.

- 병원에 가야 할 때의 대응은 ‘혼자 병원에 간다’가 46.5%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족과 함께 병원에 간다’가 25.3%였다.
- 질병이나 부상 시 겪는 어려움의 1 순위 응답은 ‘병원 종류가 많아 찾는 방법을 모르겠다’가 30.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본어를 할 수 없어 병원 예약이나 진료를 받지 못한다’가 21.0%였다.

‘문 26 질병·부상 시 겪는 어려움’의 단순 집계 결과

	順位 (n = 3,500)		
	1位	2位	3位
일본어를 못해서 병원 예약이나 진료를 받을 수 없다	21.0%	4.8%	3.3%
병원 종류가 많아 어떤 병원을 가야 할지 모르겠다	30.2%	15.5%	5.5%
일본어 읽기·쓰기가 안 되어 병원 서류를 작성할 수 없다	4.7%	10.9%	9.7%
받은 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1.0%	3.0%	3.2%
의료비가 너무 비싸다	7.2%	10.7%	8.1%
모국과 다른 의료 방식에 불안함을 느낀다	4.3%	7.9%	10.7%
기타	1.7%	1.2%	1.3%
특별히 곤란한 점은 없다	18.3%	0.0%	0.0%
무답변	11.6%	46.0%	5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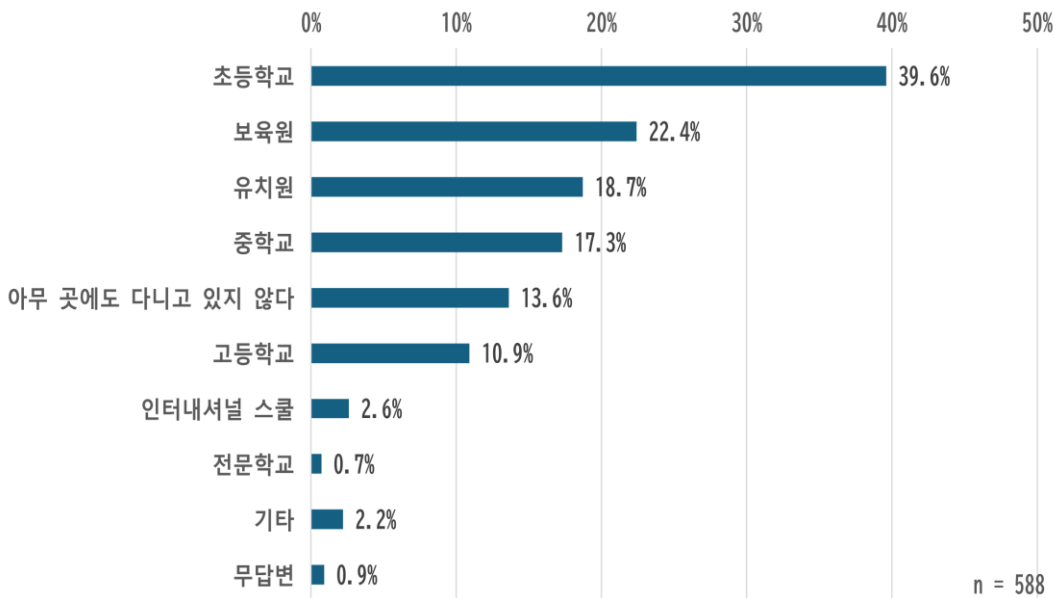
7. 육아·교육

주요 내용

자녀가 ‘있다’는 응답은 16.8%였다. 자녀가 다니는 시설·학교는 ‘초등학교’가 39.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어린이집’이 22.4%였다.

- 자녀 유무는 ‘있다’가 16.8%, ‘없다’가 77.2%였다.
- 자녀가 다니는 시설·학교는 ‘초등학교’가 39.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어린이집’이 22.4%였다.

‘문 28 자녀가 다니는 시설·학교’의 단순 집계 결과



- 육아나 자녀 교육에 관한 어려움·걱정은 ‘없다’가 43.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육아나 교육에 돈이 많이 든다’가 25.3%였다.
- 자녀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희망하는 지원은 ‘일본어를 할 수 없는 보호자에 대한 지원(일본어 교육 등)’이 36.1%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국어로 학습과 생활에 관해 알려 주는 지원’이 35.0%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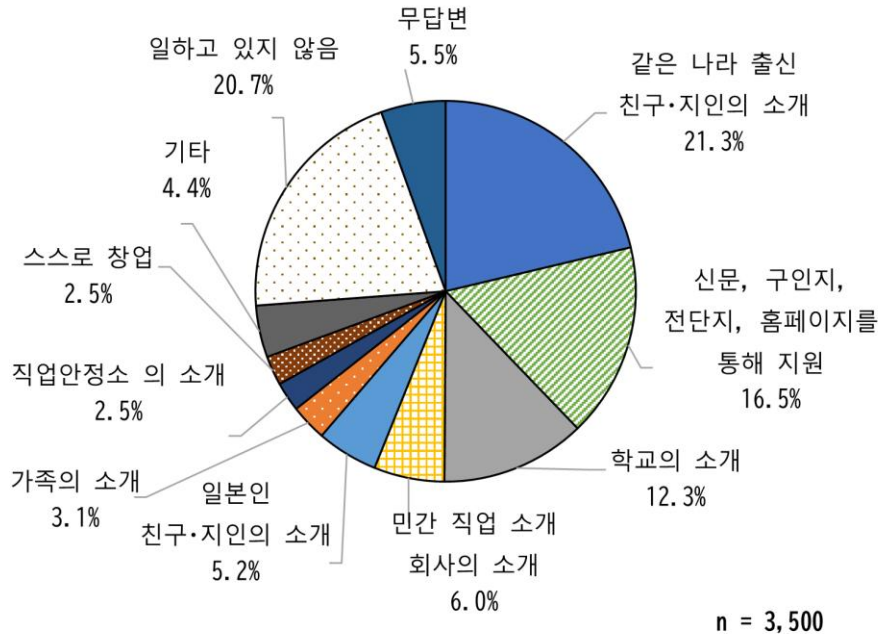
8. 일

주요 내용

일자리를 구한 방법은 ‘같은 나라 출신 친구·지인의 소개’가 21.3%로 가장 많았다. 일에 관한 어려움이나 불만은 ‘없다’가 36.7%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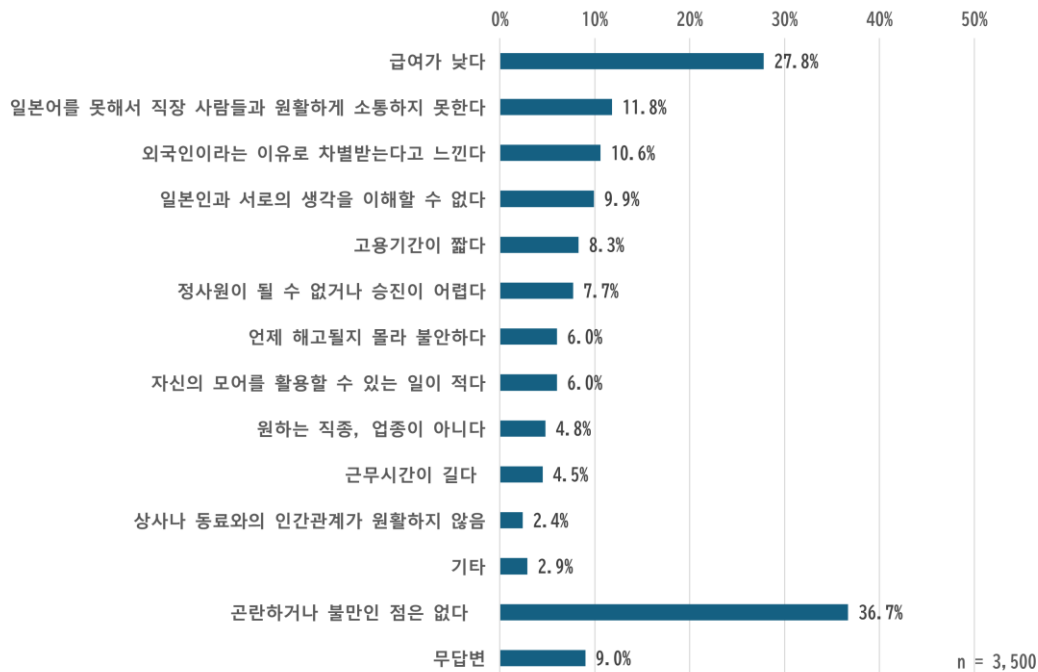
- 일자리를 구한 방법은 ‘같은 나라 출신 친구·지인의 소개’가 21.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을 하고 있지 않다’가 20.7%였다.

‘문 31 일자리를 구한 방법’의 단순 집계



- 일에 관한 어려움이나 불만은 ‘없다’가 36.7%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급여가 낮다’가 27.8%였다.

‘문 32 일에 관한 어려움이나 불만’의 단순 집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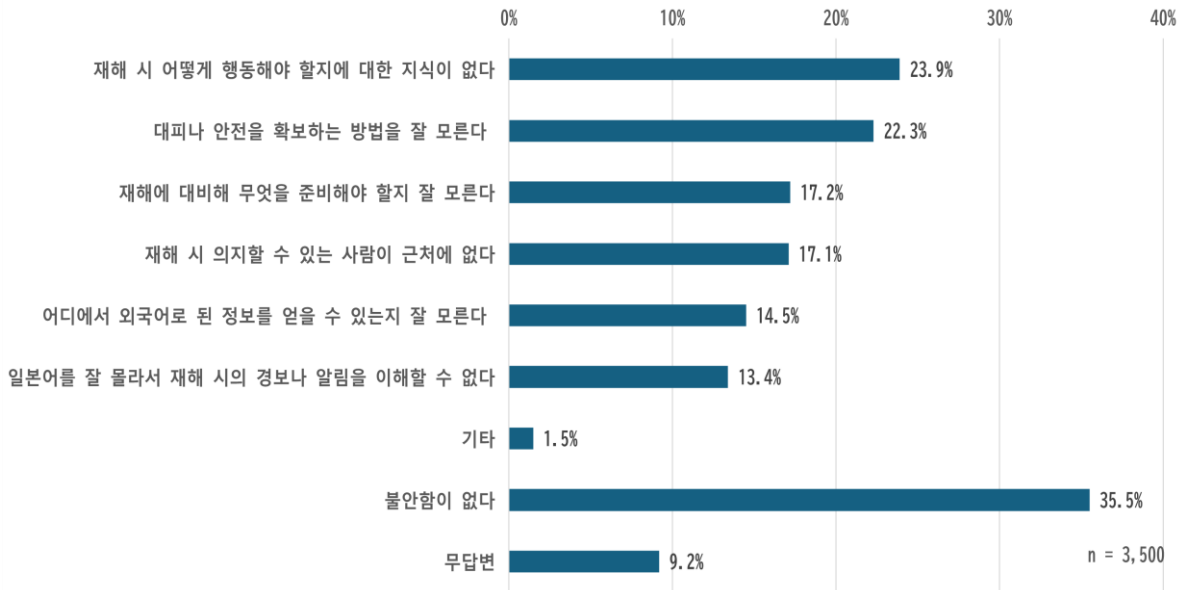
9. 방재·위기관리

주요 내용

재해에 관한 걱정은 ‘불안하지 않다’가 35.5%로 가장 많았다. 재해에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은 ‘재해에 대해 알고 있다’가 45.0%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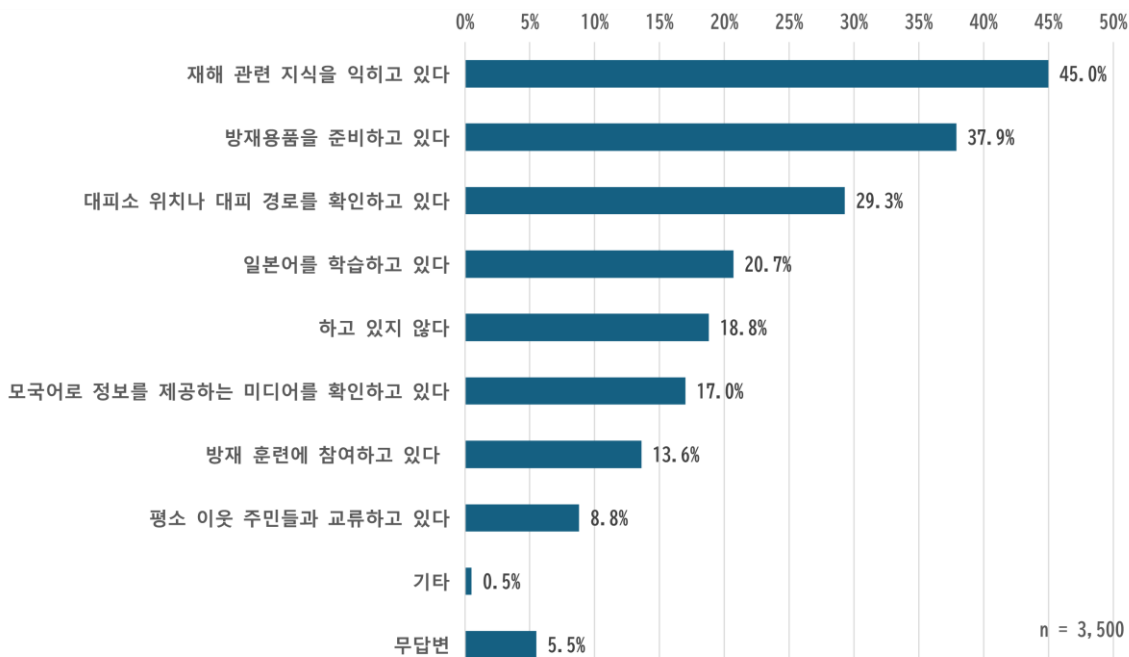
- 재해에 관한 걱정은 ‘불안하지 않다’가 35.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가 23.9%였다.

‘문 33 재해에 관한 걱정’의 단순 집계 결과



- 재해에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은 ‘재해에 대해 알고 있다’가 45.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재해 시 필요한 물품과 음식을 준비한다’가 37.9%였다.

‘문 34 재해 대비 사항’의 단순 집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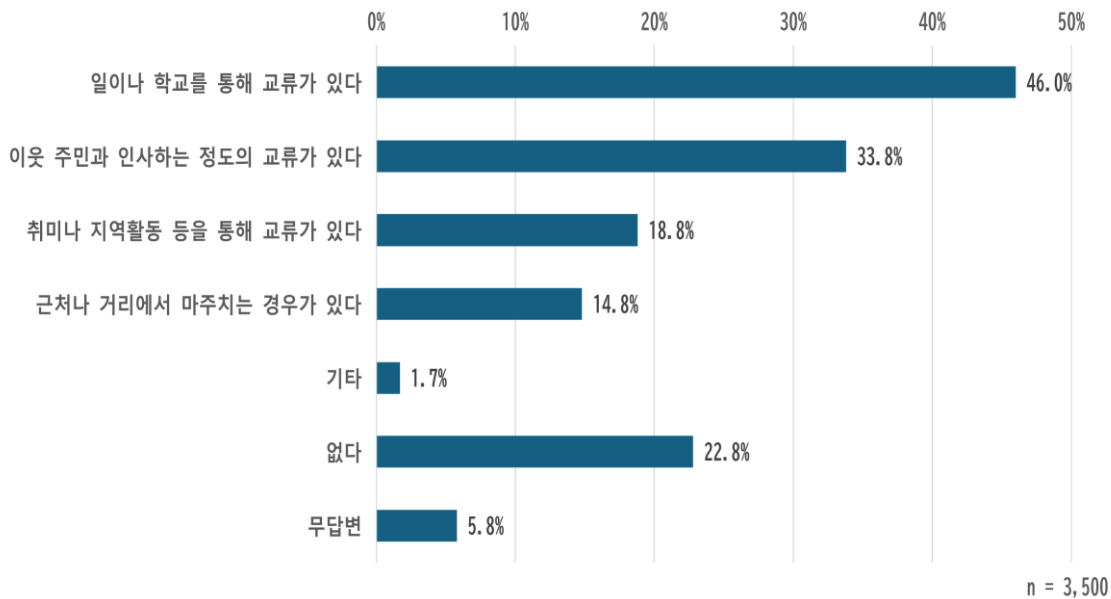
10. 지역사회와의 교류

주요 내용

지역사회와의 교류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교류한다’가 46.0%로 가장 많았다. 희망하는 교류 활동은 ‘일본의 문화와 생활 습관을 배우고 싶다’가 50.7%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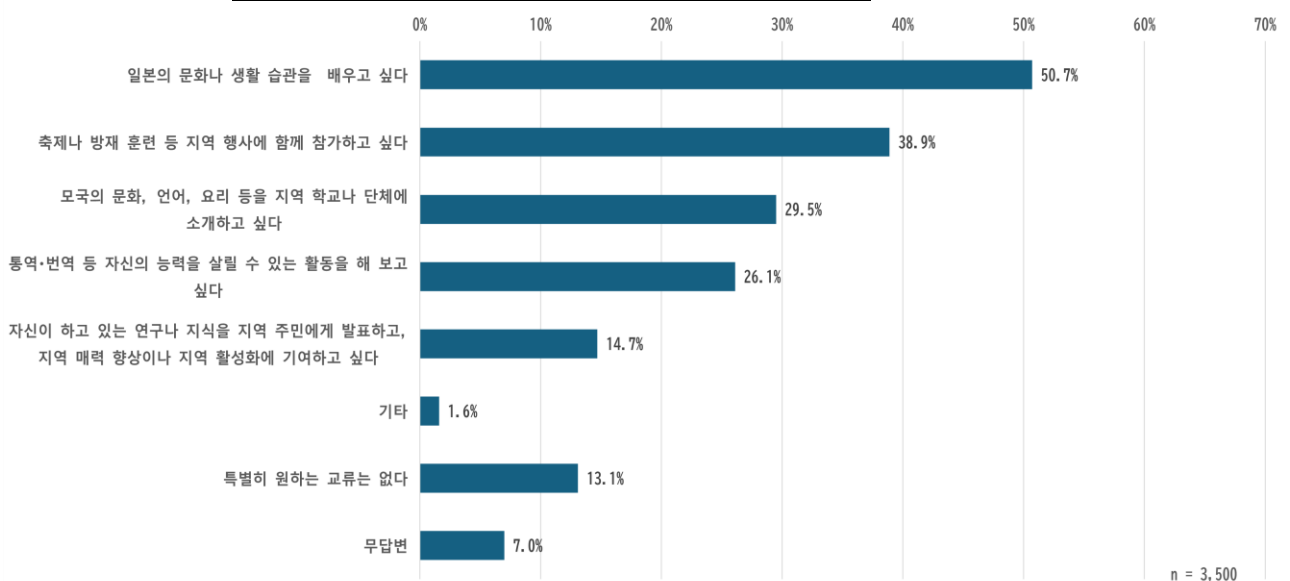
- 지역사회와의 교류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교류한다’가 46.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웃과 인사를 나눈다’가 33.8%였다.

‘문 35 지역사회와의 교류 현황’의 단순 집계



- 희망하는 교류 활동의 1 순위 응답은 ‘일본의 문화와 생활 습관을 배우고 싶다’가 50.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축제나 방재 훈련 등 거주 지역 행사에 함께 참가하고 싶다’가 38.9%였다.

‘문 36 희망하는 교류 활동’의 단순 집계



- 교류하지 않는 이유나 어려움은 ‘어떤 기회가 있는지 모른다’가 39.9%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말이 통할지 불안하다’가 27.0%였다.

11. 행정서비스

주요 내용

시청 창구 이용 시 겪는 어려움은 ‘없다’가 36.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류가 쉬운 일본어나 다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아 곤란했다’가 23.9%였다.

- 시청 창구에 가려고 할 때 겪는 어려움의 1 순위 응답은 ‘없다’가 36.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류가 쉬운 일본어나 다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아 곤란했다’가 23.9%였다.

‘문 38 시청 창구 방문 시 겪는 어려움’의 단순 집계 결과

	順位 (n = 3,500)		
	1位	2位	3位
서류가 쉬운 일본어나 다국어로 되어 있지 않아 곤란했다	23.9%	6.2%	5.8%
외국어 안내 표지가 없어 어느 창구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맸다	7.6%	12.2%	5.2%
언어가 통하지 않아 직원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곤란했다	10.8%	12.1%	8.9%
직원이 사용하는 말에 전문용어가 많아 곤란했다	7.1%	7.3%	8.7%
기타	2.2%	0.7%	1.2%
특별히 곤란한 점은 없다	36.9%	1.0%	2.2%
무답변	11.5%	60.6%	68.0%

III 자유 의견

【총 응답 건수: 2,062 건】

대분류	건수	소분류	건수
언어	62	일본어 학습	43
		일본어 능력	13
		기타	6
거주	57	임대차 계약·월세	25
		주거지 찾기	24
		기타	8
생활	856	전반적인 거주 편의성	235
		물가·생활비	155
		다문화 이해	101
		대중교통	93
		세금·의료보험·연금	84
		자동차·자전거·교통 환경	45
		여가·스포츠·문화예술	35
		안전·안심	25
		식사·쇼핑	24
		관광	22
		쓰레기 배출 규칙	17
		환경 보전	11
		기타	9
정보	96	다국어 지원	76
		정보 제공	15
		기타	5
복지·의료	37	병원 찾기	18
		다국어 지원	10
		기타	9
육아·교육	75	육아 지원	28
		아동 놀이 공간	21
		학교	20
		기타	6
일	294	진학·취업 기회	170
		급여·직장 환경	116
		기타	8
방재·위기관리	26	방재·감재 대책	17
		정보 제공	9
지역사회와의 교류	98	지역사회 교류 전반	56
		교류 행사	24
		정보 제공	11
		기타	7
행정서비스	151	다국어 지원	57
		상담 창구·생활 지원	45
		전반적인 행정 절차	25
		디지털화·온라인화	15
		기타	9
기타	310	의견 없음(어려움이 없는 경우 포함)	205
		의견 수렴 기회(본 조사에 관한 의견 포함)	33
		감사의 말·응원 메시지	25
		채류관리제도	21
		기타	26

【주요 내용】

① 대분류

- ‘기타’를 제외하면 ‘생활’이 856 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 294 건, ‘행정서비스’ 151 건 순이었다.

② 소분류

- ‘언어’에서는 ‘일본어 학습’(43 건)에 관한 의견이 많았으며, 시간과 장소, 온라인 활용 등 참여하기 쉬운 일본어 학습 기회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거주’에서는 ‘임대차 계약·월세’(25 건)와 ‘주거지 찾기’(24 건)에 관한 의견이 많았으며, 월세·임대차 계약 및 주거지 탐색의 어려움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생활’에서는 ‘전반적인 거주 편의성’(235 건)에 관한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센다이의 장점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물가·생활비’(155 건)와 ‘세금·의료보험·연금’(84 건)에 관한 의견도 많았으며, 최근 물가 상승의 영향 등으로 생활비와 세금·사회보험료 납부에 관한 의견이 많았다. ‘다문화 이해’(101 건)에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제시되었고, ‘대중교통’(93 건)에서는 버스에 관한 의견이 많았다.
- ‘정보’에서는 ‘다국어 지원’(76 건)에 관한 의견이 많았으며, 다국어 표기 확대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복지·의료’에서는 ‘병원 찾기’(18 건)에 관한 의견이 많았으며, 의료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체계 마련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육아·교육’에서는 ‘육아 지원’(28 건)과 ‘아동 놀이 공간’(21 건)에 관한 의견이 많았으며, 육아 제도 확충과 아동 놀이 공간 정비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일’에서는 ‘진학·취업 기회’(170 건)와 ‘급여·직장 환경’(116 건)에 관한 의견이 많았으며, 아르바이트 구직과 급여 수준 등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방재·위기관리’에서는 ‘방재·감재 대책’(17 건)에 관한 의견이 많았으며, 재해 시 대응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지역사회와의 교류’에서는 ‘지역사회 교류 전반’(56 건)에 관한 의견이 많았으며, 지역 주민을 알게 될 기회와 자신의 경험 등을 살린 교류를 비롯하여 지역사회 교류에 관한 폭넓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 ‘행정서비스’에서는 ‘다국어 지원’(57 건)에 관한 의견이 많았으며, 행정 절차에서의 언어 지원과 서류의 다국어화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기타’에서는 ‘의견 없음(어려움이 없는 경우 포함)’(205 건)이 많았으며, 그 밖에 본 조사에 관한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IV 조사 문항

1. 기본 속성

1. 기본 속성

문 1 국적이나 지역은 어디입니까? 기타인 경우에는 명칭을 써 주세요. (하나만 선택)

1. 중국 2. 네팔 3. 베트남 4. 한국 5. 미얀마 6. 필리핀 7. 인도네시아 8. 스리랑카 9. 미국 10. 방글라데시 11. 대만 12. 태국 13. 인도 14. 조선 15. 몽골
16. 기타(국가/지역명:)

문 2 성별은 무엇입니까?(하나만 선택)

1. 남
2. 여
3. 응답하지 않음

문 3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만 나이로 하나만 선택)

1. 16 ~ 19 세
2. 20 세 ~ 29 세
3. 30 세 ~ 39 세
4. 40 세 ~ 49 세
5. 50 세 ~ 59 세
6. 60 세 ~ 69 세
7. 70 세 ~ 79 세
8. 80 세 ~

문 4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원수도 기입해 주세요. (해당되는 모든 항목을 선택)

1. 없다
2. 배우자·파트너(명)
3. 만 18 세 미만 자녀(명)
4. 만 18 세 이상 자녀(명)
5. 부모(명)
6. 형제자매(명)
7. 친구·지인(명)
8. 기타(구체적으로: 명)

문 5 체류자격은 무엇입니까?(하나만 선택)

1. 유학 2. 영주자 3.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4. 기능실습 5. 가족체류 6. 특별영주자 7. 특정
기능 8. 일본인의 배우자 등 9. 교수 10. 특정활동 11. 정주자 12. 기능 13. 교육 14. 경영·관
리 15. 고도전문직 16. 기타(구체적으로:)

문 6 현재 신분이나 입장(학생, 사회인 등)에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세요. (하나만 선택)

1. 고등학생 2. 대학생 3. 대학원생 4. 일본어학교 학생 5. 전문학교 학생(일본어학교 학생
제외) 6. 연구자 7. 교육기관 직원 8. 회사 경영자·임원 9. 상근 사원 10. 개인사업주 11. 시
간제근무자·아르바이트(학생 제외) 12. 가사에 전념 13. 기타(구체적으로:)

2. 언어

문 7 일본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각 항목마다 하나씩 선택)

▼말하기	1.불편 없이 말할 수 있다 2.일상생활에 지장 없을 정도로 말할 수 있다 3.짧은 대화를 천천히 할 수 있다 4.단어만 말할 수 있다 5.말할 수 없다
▼듣기	1.불편 없이 알아들을 수 있다 2.일상생활에 지장 없을 정도로 알아들을 수 있다 3.상대방이 천천히 말해 주면 알아들을 수 있다 4.단어만 알아들을 수 있다 5.알아들을 수 없다
▼쓰기	1.불편 없이 쓸 수 있다 2.일상생활에 지장 없을 정도로 쓸 수 있다 3.쉬운 한자·가타카나·히라가나는 쓸 수 있다 4.가타카나·히라가나만 쓸 수 있다 5.쓸 수 없다
▼읽기	1.불편 없이 읽을 수 있다 2.일상생활에 지장 없을 정도로 읽을 수 있다 3.쉬운 한자·가타카나·히라가나는 읽을 수 있다 4.가타카나·히라가나만 읽을 수 있다 5.읽을 수 없다

문 8 일본어를 배우고 계십니까?(가장 해당되는 항목을 하나만 선택)

1.배울 필요가 없다 2.배우고 싶지만 배울 수 없다 3.대학이나 직장에서 배우고 있다 4.일본어학교에서 배우고 있다 5.지역의 일본어교실에서 배우고 있다 6.교재나 온라인 등으로 혼자 배우고 있다 7.가족에게 배우고 있다 8.일본인 지인·친구에게 배우고 있다 9.기타(구체적으로: _____)
--

문 9 일본어를 배우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상위 3 가지를 1 위, 2 위, 3 위 순서로 선택)

1.일본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2.가족이나 친구 등이 통역해 주기 때문에 3.일본어를 이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4.일이나 육아 등으로 바빠서 배울 시간이 없기 때문에 5.어디에서 일본어를 배울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6.근처에 일본어 학교가 없기 때문에 7.근처에 지역 일본어 교실이 없기 때문에 8.학습에 필요한 돈이 없기 때문에 9.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 10 어떤 환경이 갖추어지면 일본어를 배우고 싶으십니까?(상위 3 가지를 1 위, 2 위, 3 위 순서로 선택)

1.일본인과 대화를 하면서 배울 수 있는 환경	
2.바로 사용할 수 있는 대화를 배울 수 있는 환경	
3.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배울 수 있는 환경	
4.인터넷이나 앱으로 원하는 시간에 배울 수 있는 환경	
5.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질 높은 일본어를 배울 수 있는 학교·교실	
6.비용이 저렴한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일본어학교·교실	
7.아이를 맡기면서 배울 수 있는 환경	
8.기타(구체적으로:)	
9.없음	

문 11 영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각 항목마다 하나씩 선택)

▼말하기	1.불편 없이 말할 수 있다 2.일상생활에 지장 없을 정도로 말할 수 있다 3.짧은 대화를 천천히 할 수 있다 4.단어만 말할 수 있다 5.말할 수 없다
▼듣기	1.불편 없이 알아들을 수 있다 2.일상생활에 지장 없을 정도로 알아들을 수 있다 3.상대방이 천천히 말해 주면 알아들을 수 있다 4.단어만 알아들을 수 있다 5.알아들을 수 없다
▼쓰기	1.불편 없이 쓸 수 있다 2.일상생활에 지장 없을 정도로 쓸 수 있다 3.쉬운 문장을 쓸 수 있다 4.단어만 쓸 수 있다 5.쓸 수 없다
▼읽기	1.불편 없이 읽을 수 있다 2.일상생활에 지장 없을 정도로 읽을 수 있다 3.쉬운 문장을 읽을 수 있다 4.단어만 읽을 수 있다 5.읽을 수 없다

3. 거주

문 12 일본에 얼마나 거주하십니까?(하나만 선택)

- 1. 1년 미만
- 2. 1년 이상 ~ 3년 미만
- 3. 3년 이상 ~ 5년 미만
- 4. 5년 이상 ~ 10년 미만
- 5. 10년 이상 ~ 20년 미만
- 6. 20년 이상

문 13 어떤 형태의 주택에 살고 계십니까?(하나만 선택)

- 1. 자가(단독주택, 맨션)
- 2. 민간 임대주택(단독주택, 맨션, 아파트)
- 3. 회사나 학교의 숙소·기숙사·사택(회사가 빌린 아파트 포함)
- 4. 시영주택, 현영주택 등의 공영주택
- 5. 기타(구체적으로:)

문 14 지금 살고 계신 집은 어떻게 찾으셨습니까?(하나만 선택)

- 1. 부동산 창구
- 2. 주택 정보지(종이 매체)
- 3. 웹사이트
- 4. 친구·지인의 소개
- 5. 회사·학교 소개
- 6. NPO 법인 등 지원 단체 소개
- 7. 기타(구체적으로:)

문 15 집을 찾을 때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또는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까?(상위 3 가지를 선택)

- 1. 월세·보증금·사례금이 비싸다
- 2. 보증인이 없다
- 3.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입주를 거절당했다
- 4. 보증금이나 중개수수료 등 절차나 관습을 잘 모른다
- 5. 부동산 창구 직원과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
- 6. 주택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다
- 7. 기타(구체적으로:)
- 8. 없음

4. 일상생활

문 16 당신에게 센다이시는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하나만 선택)

- 1. 살기 좋다
- 2. 비교적 살기 좋은 편이다
- 3. 비교적 살기 어려운 편이다
- 4. 살기 어렵다
- 5. 잘 모르겠다

문 17 센다이시에서 살면서 좋다고 느낀 점, 살기 편하다고 느끼신 점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모든 항목을 선택)

- 1. 가족·친구·지인이 있다
- 2. 자연환경이 좋다
- 3. 통학·출퇴근·쇼핑 등 생활이 편리하다
- 4. 즐겁게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곳이 많다
- 5. 지역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좋다
- 6. 치안이 좋다(안심·안전하다)
- 7. 의료·복지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다
- 8. 자녀의 교육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
- 9. 자신에게 맞는 일이 있다
- 10. 자신이 배우고 싶은 학교가 있다
- 11. 스포츠·문화 시설이 잘 되어 있다
- 12. 집세나 토지 임대료 등 생활비가 저렴하다
- 13. 재해 대비가 잘 되어 있어 안심된다
- 14. 기타(구체적으로:)
- 15. 좋다고 느낀 점은 없다

문 18 앞으로도 센다이시·일본에 계속 살고 싶으십니까?(하나만 선택)

- 1. 센다이시에서 계속 살고 싶다
- 2. 센다이시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본에 계속 살고 싶다
- 3. 언젠가는 떠날 생각이다
- 4. 계속 살고 싶지 않다
- 5. 잘 모르겠다

문 19 일본에 살고 계신 분은 외국인이라도 주민세 등의 세금 납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하나만 선택)

- 1. 알고 있다
- 2. 모른다

문 20 일본에 살고 계신 분은 외국인이라도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적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가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하나만 선택)

- 1. 알고 있다
- 2. 모른다

문 21 지금까지 센다이시에서 일상생활하면서 곤란했던 경험이나 트러블을 겪은 적이 있으십니까?
또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해당되는 모든 항목을 선택)

- 1.거주 지역 주민과 언어가 통하지 않아 곤란했거나 트러블이 있었다
- 2.문화·생활습관·종교의 차이로 인해 곤란했거나 트러블이 있었다
- 3.쓰레기 분리 및 배출 방법의 규칙을 몰라 곤란했거나 트러블이 있었다
- 4.자동차나 자전거 등의 교통 규칙을 몰라 곤란했거나 트러블이 있었다
- 5.의료·보험 제도의 구조나 절차를 몰라 곤란했거나 트러블이 있었다
- 6.세금·연금 제도의 구조나 납부 방법을 몰라 곤란했거나 트러블이 있었다
- 7.출산·육아 제도나 절차를 몰라 곤란했거나 트러블이 있었다
- 8.기타(구체적으로: _____)
- 9.곤란하거나 트러블이 있었던 적은 없다

문 22 센다이시에서 일상생활하면서 곤란하거나 트러블이 있었을 때 누구(어디)에 상담하십니까?(상위 3 가지를 1 위, 2 위, 3 위 순서로 선택)

- 1.같은 나라 출신의 친구·지인 2.가족 3.학교나 직장 사람 4.일본인 친구·지인 5.근처에 사는 일본인 6.대사관·영사관 7.시민단체 8.시청·구청 등의 관공서
- 9.센다이 다문화공생센터(SenTIA) 10.기타(구체적으로: _____)
- 11.상담할 수 있는 상대가 없었다

5. 정보

문 23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고 계십니까?
(상위 3 가지를 1 위, 2 위, 3 위 순서로 선택)

- 1.함께 사는 가족
- 2.일본인 친구·지인, 이웃
- 3.일본인 이외의 친구·지인
- 4.학교 선생님이나 직장 동료
- 5.SNS 등에서 모국어로 일본 정보를 제공하는 유명인(인플루언서, 유튜버 등) 6.모국어로 이용 중인 SNS(구체적인 명칭: _____)
- 7.일본어교실
- 8.시청 창구·홈페이지·SNS·시정소식지
- 9.센다이 다문화공생센터(SenTIA) 창구·홈페이지·SNS
- 10.TV·신문·라디오·잡지
- 11.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 24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할 때 어떤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상위 3 가지를 1 위, 2 위, 3 위의 순서로 선택)

- 1.쉬운 일본어로 정보 제공
- 2.영어로 정보 제공
- 3.모국어(영어 제외)로 정보 제공
- 4.전화번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구체적인 명칭: _____)로 문의할 수 있는 환경
- 5.메일이나 SNS(구체적인 명칭: _____) 문의할 수 있는 환경
- 6.기타(구체적으로: _____)
- 7.바라는 지원은 없다

6. 복지·의료

문 25 당신이나 가족이 병에 걸리거나 다쳐서 병원에 가야 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만 선택)

- 1.혼자서 병원에 간다
- 2.가족과 함께 병원에 간다
- 3.가족 이외의 사람과 함께 병원에 간다
- 4.병원에 가고 싶지만 가는 방법을 몰라서 곤란하다
- 5.병원에는 가지 않고 약을 먹는다
- 6.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 7.잘 모르겠다

문 26 자신이나 가족이 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곤란한 점은 무엇입니까?
(상위 3 가지를 1 위, 2 위, 3 위 순서로 선택)

- 1.일본어를 못해서 병원 예약이나 진료를 받을 수 없다
- 2.병원 종류가 많아 어떤 병원을 가야 할지 모르겠다
- 3.일본어 읽기·쓰기가 안 되어 병원 서류를 작성할 수 없다
- 4.받은 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 5.의료비가 너무 비싸다
- 6.모국과 다른 의료 방식에 불안함을 느낀다
- 7.기타(구체적으로:)
- 8.특별히 곤란한 점은 없다

7. 육아·교육

문 27 함께 살고 있는 17 세 이하의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만 선택)

- 1.있다 (문 28 로)
2.없다 (문 31 로)

문 28 자녀분은 어떤 종류의 유치원, 보육원,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모든 항목을 선택)

1. 아무 곳에도 다니고 있지 않다(만 세 ※나이 기입는 선택사항)
 2.보육원 3.유치원 4.초등학교 5.중학교
 6.고등학교 7.전문학교 8.인터넷서널 스쿨 9.기타(구체적으로:)

문 29 자녀 양육이나 교육과 관련하여 곤란하거나 걱정되는 점이 있으십니까?(상위 3가지를 선택)

- 1.상당할 수 있는 사람이나 장소가 없다
- 2.일본어를 못해서 선생님이나 아이와 잘 소통하지 못한다
- 3.일본어를 못해서 보육원·유치원·학교와 연락이 어렵다
- 4.일본의 육아·교육 제도를 잘 모른다
- 5.모자건강수첩이나 예방접종 제도를 잘 모른다
- 6.보육원·유치원·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를 잘 모른다
- 7.일하고 싶지만,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
- 8.육아나 교육에 돈이 많이 든다
- 9.기타(구체적으로:)
- 10.없다

문 30 외국인 아동·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떤 학습이나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상위 3 가지를 선택)

1. 아동·학생의 학습 수준에 맞춘 개별 과목 지도, 일본어 지도
2. 다언어로 제공하는 학습 지도나 일상생활 지도
3. 할랄 대응 급식이나 비건 대응 급식 등의 제공
4. 학습용품 대여나 소득에 따른 급식비 면제를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임
5. 선생님과 대화 시에 언어 지원
6. 일본어를 하지 못하는 보호자에 대한 지원
7. 인터내셔널 스쿨을 늘림
8. 기타(구체적으로:)
9. 특별히 필요한 것은 없다

8. 일

문 31 현재의 일자리는 어떻게 찾으셨습니까?(하나만 선택)

- 1.가족의 소개(부모의 일을 물려받거나 가족 일을 돕고 있는 경우도 포함)
- 2.신문, 구인지, 전단지,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 3.학교의 소개
- 4.같은 나라 출신 친구·지인의 소개
- 5.일본인 친구·지인의 소개
- 6.직업안정소(헬로워크)의 소개
- 7.민간 직업 소개 회사의 소개
- 8.스스로 창업
- 9.기타(구체적으로:)
- 10.일하고 있지 않음

문 32 업무와 관련하여 곤란하거나 불만인 점은 무엇입니까?(상위 3 가지를 선택)

- 1.일본어를 못해서 직장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한다
- 2.급여가 낮다
- 3.고용기간이 짧다
- 4.근무시간이 길다
- 5.언제 해고될지 몰라 불안하다
- 6.정사원이 될 수 없거나 승진이 어렵다
- 7.일본인과 서로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
- 8.상사나 동료와의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않음
- 9.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다고 느낀다
- 10.원하는 직종, 업종이 아니다
- 11.자신의 모어를 활용할 수 있는 일이 적다
- 12.기타(구체적으로:)
- 13.곤란하거나 불만인 점은 없다

9. 방재·위기관리

문 33 지진이나 태풍 등 큰비와 같은 재해에 대해 어떤 점에서 불안을 느끼십니까?
(상위 3 가지를 선택)

1. 재해 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지식이 없다
2. 일본어를 잘 몰라서 재해 시의 경보나 알람을 이해할 수 없다
3. 어디에서 외국어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잘 모른다
4. 대피나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
5. 재해 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근처에 없다
6. 재해에 대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른다
7. 기타 (구체적으로:)
8. 불안함이 없다

문 34 평소 재해에 대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해당되는 모든 항목을 선택)

1. 하고 있지 않다
2. 재해 관련 지식을 익히고 있다
3. 방재용품을 준비하고 있다
4. 대피소 위치나 대피 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5. 모국어로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를 확인하고 있다
6. 평소 이웃 주민들과 교류하고 있다
7. 방재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8. 일본어를 학습하고 있다
9. 기타(구체적으로:)

1 0 . 지역과의 교류

문 35 거주 지역의 일본인 주민들과 평소 어떤 교류가 있으십니까?(해당되는 모든 항목을 선택)

- 1.없다
- 2.취미나 지역활동 등을 통해 교류가 있다
- 3.알이나 학교를 통해 교류가 있다
- 4.이웃 주민과 인사하는 정도의 교류가 있다
- 5.근처나 거리에서 마주치는 경우가 있다
- 6.기타(구체적으로:)

문 36 지역 학교나 단체와 어떤 교류를 해 보고 싶으십니까?(상위 3 가지를 선택)

- 1.일본의 문화나 생활 습관을 배우고 싶다
- 2.모국의 문화, 언어, 요리 등을 지역 학교나 단체에 소개하고 싶다
- 3.축제나 방재 훈련 등 지역 행사에 함께 참가하고 싶다
- 4.자신이 하고 있는 연구나 지식을 지역 주민에게 발표하고, 지역 매력 향상이나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싶다
- 5.통역·번역 등 자신의 능력을 살릴 수 있는 활동을 해 보고 싶다
- 6.기타(구체적으로:)
- 7.특별히 원하는 교류는 없다

문 37 지역의 학교나 단체와 교류하지 않는 이유나 곤란한 점은 무엇입니까?(상위 3 가지를 선택)

- 1.어떤 교류 기회가 있는지 잘 모른다
- 2.언어가 통할지 걱정된다
- 3.시간이 없어 교류할 여유가 없다
- 4.아는 사람이 없어 불안하다
- 5.지역 주민이 나를 받아들여 줄지 걱정된다
- 6.참가할 때의 경비(교통비 등) 부담
- 7.기타(구체적으로:)
- 8.특별히 곤란한 점은 없다

1 1. 행정서비스

문 38 시청 창구에 가려고 했을 때 곤란한 점은 무엇입니까?(상위 3 가지를 1 위, 2 위, 3 위 순서로 선택)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서류가 쉬운 일본어나 다국어로 되어 있지 않아 곤란했다2.외국어 안내 표지가 없어 어느 창구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맸다3.언어가 통하지 않아 직원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곤란했다4.직원이 사용하는 말에 전문용어가 많아 곤란했다5.기타(구체적으로:)6.특별히 곤란한 점은 없다 |
|---|

1 2. 기타

문 39 마지막으로, 앞으로 센다이시에 꼭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일이나, 이번 설문 항목 외에 곤란한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2025 년도 「센다이시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 조사 결과 보고서【개요판】
2026 년 1 월 발행 센다이시 도시정책국 정책기획부 다양성추진과
〒980-8671 센다이시 아오바구 고쿠분초 3 초메 7 번 1 호